

GRACE 선교소식

2024년 10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41명 (자체 파송 79%)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은혜교회 개척!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주일 4부 부흥회를 마치고, 밤 비행기로 출발해 인천에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강남역 삼동에 위치한 GMI 은혜 교회 새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정태호 목사님 및 건축 시공 관계자분들과 회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가 지하에 만들어질 작은 예배당은 완전 건축 수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작업입니다. 마치 성막을 건축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 덕분에 건물 계약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방문 시설입니다. 건물이 다른 상가와 주택들과 인접

해 있어, 예배실의 방음이 잘 되어야 주변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선교 비전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태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귀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적은 수로 시작하지만,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면, 주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고 세계 선교의 모델 교회로 세워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GMI 은혜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 은혜 교회와 GMI 선교를 개척하신 고 김광신 목사님은 한국에 GMI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고, 선교적 모델 교회를 구축하며, 올바른 선교가 애국애족하는 일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깊은 뜻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서울에 GMI 은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10/14(월)~17(목) 한미 목회자 포럼
- 10/20(주일)~22(화) 안산 빛나교회
- 10/23(수)~24(금), 베트남 TD3기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은 미약하지만, 주님 앞에 순수하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친히 부흥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캄보디아 Cambodia

안진호 / 안지연 선교사

쁘렉끄러빠은 은혜교회 바자회

캄보디아의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주신 생필품으로 교회 성도님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바자회를 했습니다. 총판매 수익이 \$100 정도 되어서 마을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분들과 가족들에게 쌀, 간장, 태국라면 등을 구매하여 나누어 드리는 뜻깊고 의미있는 바자회가 되었습니다.

인카운터(새신자 교육)

쁘렉끄러빠은 은혜교회에 올해 1월부터 어른 성도님들이 4명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인카운터가 절실하게 느껴져서 저희 부부가 팀멤버로 강의, 식사, 팔랑카, 데코



등 모든 것을 본 교회에서 한 것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언어로 인카운터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 6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기에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카운터를 시작하였고, 마지막주에는 주말 수양회 및 성령체험을 하는 기도까지 주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쁘렉끄러빠은 은혜교회 인카운터 1기에 팔랑카로 섬겨주신 목사님, 권

사님, 집사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인 준세이하 전도사

12월이 되면 신대원 2학년이 됩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신실해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종으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10월에 출산 예정인 아내 판나와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M.K (선교사 자녀) 국제학교 수업

8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심리치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푸드 아트, 음악 아트, 미술 아트를 접목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집중을 더 잘 하고,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많이 꺼내주는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빨리 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Myanmar

곽현섭(1기) / 전재훈(12기)
강범수(13기) 선교사

마을로 돌아온 연약자 A그룹 인원은 현재 두 마을의 지붕까지 완전 침수 가옥이 130채를 넘어섰기에 당분간은 인레의 아침 수상 선교 센터 2층, 옆건물 식당 2층, 마을 2층의 여러 집들로 분산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수해민 긴급대응 1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식료품 / 의료용품 / 생필품 지원 중



심으로 전환하며 앞으로 3단계인 마을 재건을 위한 사전 리서치 단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쌀 / 기름 / 충전 배터리 /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가운데 수해민들과 나눈 내용 중에 앞으로 일상의 복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옥 보수를 해야하기에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재정을 모아서 수시로 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여 여건이 되는 선에서 재정을 완전 침수 가정 중심으로 작지만 마음을 다해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일 비가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내리곤 합니다. 수위가 낮아지길 기도합니다.

레바논 Lebanon

장OO / 서OO 선교사

며칠 전 아이들의 폭죽놀이인 줄 알았던 폭음이 호출기와 무전기가 폭탄이 되어 수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레바논은 전투기에서 민간인 마을과 도심 한복판에 폭탄을 투하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전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사상자가 발생하고 학교와 공공시설에 피해가 있습니다. 이에 레바논에 있는 한인사역자들이 모인 레바논한인교회에서 고국의 교회 앞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450만 인구의 레바논에는 200만 이상의 난민들이 같이 살

고 있으며 이제는 모두가 피난민이 되어 전쟁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피난민으로 내보내시어 심령이 가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에 갑자기 난민이 된 레바논 사람들에게 한끼의 따뜻한 식사와 담요 한 장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몽족

황인주 / 황사라 선교사

주님의 평강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Fresno 가을은 온갖 과일과 함께 풍성해지면서 뜨거운 태양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몽족과 아시아인 난민들 사역은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과 후원으로 계속 영혼구원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Food Distribution은 100명 이상 참여하여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풍성한 야채 과일 음료수 등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목적이 아닌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기도해주고 주일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웃리치는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와서 예배와 찬양과 게임을 하면서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른들을 위한 한방 사역은 헌신적인 한의사분들이 오셔서 육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몽족·아시아인 어

르신들이 당뇨와 혈압으로 전신마비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침술을 행할 때 놀랍도록 회복되는 주님의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와 심방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열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학생들을 픽업하고 섬기고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선교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선교열정을 가진 분들이 함께 헌신할 때 천배나 더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선교센터 수리는 계속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심었던 대나무가 키가 자라서 울타리 숲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라면과 옷과 장난감 그리고 가전제품까지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도네이션 해주셔서 이곳의 가난

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내내는 10월 한달동안 한국을 방문하여 수술과 치료와 건강검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랜 사역과 선교센터 수리 때문에 쉬없이 달려왔더니 건강이 나빠져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11월에는 몽·아시아인 추수감사절 친구초청잔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50명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으로 날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Ukraine

김교역 / 김주순 선교사

어느덧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2년 7개월이 지나, 세 번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소식처럼 각 전선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전투로 무고한 생명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징집으로 도시에는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공장이나 각종 사업체에서도 일할 사람들은 부족하고, 문을 닫은 사업체들이 속속히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일할 곳을 찾는 막막해 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부터 먼저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할 때임을 깨닫고, 주일 예배로만 모이던 것을, 지난 두 달 전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수요일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회개 기도회로 모여서 두 시간 이상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오데사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 연락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하심으로 은혜가운데 전도 집회를 마치고, 그 지역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크리미아 지역과 물도바가 근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고, 군인들의 검문이 심하고, 로켓과 드론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산 속에서 무사히 성도들을 위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곳을 다녀오면서 저희들이 위로부터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쟁 중이지만, 2024년 우크라이나 장로교단 총회가 남쪽 해안 지방에 있는 니콜라예브 빛과 소금 교회에서 약 200여명 이상이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받으면서 더욱 연합하여서 선교에 힘쓰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라의 공격이 심해짐으로 주춤했었던, 지붕 복구 사업도 총회를 통하여서 2차로, 10집을 더 선정하여서, 멈추었던 건축 자재 공장에 자재를 부탁하여 주문하고,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복구 사업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며, 복음만 전파되어 영혼구원에 힘이 실어짐을 믿고, 도움을 주시는 모든 동역자들



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오면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을 대비하여, 월동준비에 힘을 쏟고 식료품 나눔과 무료 식당 운영 등, 가스 및 전기 공급의 부족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을 예상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교는 자동차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장거리를 다니다보니, 그동안 잘 타고 다니던 미니벤(봉고 차)이 고장나서 언제 고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작은 자동차로는 장거리는 감당할 수도 없고, 사역준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워낙 다급해서 합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바니아 Albania

오판석 / 정미라 선교사

‘아프리카’ 란 땅

올해 초에 부여주신 마음을 따라 아프리카 땅을 밟고 왔습니다. 잔지바르섬에서 동료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고 축복하고 짧았지만 깊은 교제를 나누고 저희가 인도네시아 사역 기간 중 섬겼던 탄자니아 현지 부부가 살고 있는 도도마란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사막같은 곳 한 가운데 위치한 현지인 친구부부의 집에서 저희는 주께서 역사하신 큰 은혜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첫 선교지였던 다르에스살렘으로 이동해서 30년 전 어린 선교사를 동역자로 잘 섬겨주셨던 아내의 선임선교사님 가정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보고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

니다. 하지만 다르에스살렘이 그간 너무나 많이 변해서 옛날 기억밖에 없는 아내는 마치 이곳에 처음 온 것처럼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사역했던 대학만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는 기억도 못하는 과거의 일들도 증인들의 입으로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간다의 엔테베로 이동해 아내의 신학교 동기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 교정에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알바니아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학기의 시작

9월 중순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새로이 만나게 하실 영혼들을 기대해봅니다. 주님께서 전도할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또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가 계속해서 한국어를 통해 교제하고 있는 영혼들



에게도 마음 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길 기도해주세요.

아니사는 한국에 갔다가 8월에 돌아왔습니다. 내년 1월에 다시 대학의 한국어언어과정에 들어가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자매가 주님의 제자로 잘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나는 저희의 예상보다 빠르게, 올해 초에 마리오라는 형제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아내와 엄마로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일본 Japan

이종하 / 정혜겸 선교사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1월부터 7월 첫주까지 108개 교회를 190번 정도 방문하며 교제했습니다. 기회있는 대로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목회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같은 시간입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일본교회 방문 설교, 코칭, 세미나

올해에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주일에는 일본교회에서 설교하며 교제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 뿐입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많은 힘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커다란 기쁨입니다. 평일

2주에 한번씩 방문해 코칭으로 교제나누는 목사부부(오가키선라이즈교회, 타카하마그리스도교도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해 목사님부부와 교회에 여러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교회로 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행해 나가고 싶은 사역으로 전도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첫 시도로 아가페처치토키에서 7주간 연속으로 하였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교회의 체질이 바뀌게 될 것이 기대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 교회를 돕는 사역으로 정착되어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노토반도 지진피해지역 봉사활동

6월 24일~28일까지 지난 1월 1일 큰 지진이 있었던 이시카와켄의 노토반도 지역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도로가 완전 개통되지 않은 지역도 많고, 상하수도,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하루 빨리 회



복되고 지진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 삶의 어려움과 인간의 노력으로 안되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센터(사무실)

기도부탁드렸던 선교센터(사무실)가 허락되었습니다. 집에서 도보 3~4분 거리의 오래된 아파트(건축 후 50년)의 방 2개짜리 집입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 귀히 사용되는 공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Indonesia

김성용/한지영 선교사

RBA 콘서트

RBA선교센터 1학기 과정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4개월의 과정을 잘 마치고 수고한 분들의 모든 시간을 작은 콘서트로 꾸몄습니다. 한글반, 중국어반, 기타반, 구정반, 프레이즈 댄스반 등 모든 클래스가 정성스레 준비한 작품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지않는 불신자를 초대하여 RBA선교센터를 소개하는 목적과 연습한 것을 발표하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믿지않는 13명의 자매들이 선교센터의 새멤버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이편의 편지, 티벳 축송형제부부

성경문답반 마지막 시간에 티벳 축송형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비디오 콜을 하면서 인도네시아형제 자매들이 축송형제를 격려했습니다. 7살 아이편은 축송형제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티벳아저씨, 예수님 믿는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아저씨를 위해 기도할게요."라며 시편91편 11절의 말씀을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티벳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해 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성경문답반이 단기팀을 만들어 티벳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선교에는 칼슨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칼슨은 중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말씀만 배우고 티벳선교를 가슴에 품고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칼슨이 돌아간 후 2학기에 성경문답반이 RBA선교센터에 정식과목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선교센터 오픈 5개월만에 주께서 하셨습니다.

학원이냐! 선교센터냐!!

지금 RBA선교센터는 메단에서 처음 시도하는 선교방법입니다. 문화적 방법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어서 저희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진 RBA선교센터이기에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교사에배시간에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글만 가르치고 음악만 가르치면 퀄리티낮은 학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무장된 교사를 세우고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장소로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민선교와 양로원 사역을 위한 첫걸음

메단에는 중동 아랍지역과 아프리카 무슬림 권에서 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곳에 이란에서 온 크리스천가족이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방문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인도하던 자매의 가족이 곧 미국으로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많은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양로원 3곳을 방문했습니다. 3곳 모두 불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지를 앞둔 어르신들에게 어찌하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천국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앞으로 어떻게 주께서 인도하실지 기도합니다.

간증문 쿠바 인카운터 & VBS

G9 / 박데모라 은퇴사모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으면 어찌 전파 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10:14)

금년 3월 말 간호사 은퇴를 앞둔 저는 그리스 난민 단기선교를 섬겼던 경험으로 이번 쿠바 신학교 인카운터 및 VBS 청소년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웬지 궁금하고 의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쿠바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두분의 선교사님과 신학교 형제 자매님들은 출발 전 6주간 동안 팀멤버들과 참가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기도로 준비한 결과로 오래전부터 알던 가족 친구들 같은 친근감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쿠바국가의 열악한 환경과 시설, 궁핍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핍박과 멸시 가운데서도 쿠바 형제 자매님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뜨거운 열정의 찬양



과 통성기도 시간에는 애통함과 탄식의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안일함과 익숙함, 타성적인 종교인의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위대한 복음만이 쿠바의 신학생 한분 한분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쿠바 청소년들과 참석한 VBS 자녀들이 생각보다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함께 섬기러 온 우리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주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선교 출발 전부터 우리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연극을 통하여서는 쿠바 청소년들과 VBS 자녀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어떤 메세지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쿠바청소년들과 VBS 어린이들 중에는 데코로 준비되었던 풍선을 처음본 아이가 공인줄 알고 발로 차는 모습을 현지 선교사님이 울컥하시면서 하는 말씀에 마음이 찡했으며 아이스크림을 간식으로 준비할 때 현지 팀멤버께서 아이스크림을 처음보는 애들이 많다길래 얼마나 애들이 좋아할까 하는 마음으로 설렘으로 준비했습니다.

쿠바신학교를 졸업한 주의 종들이 개척한 교회 3군데를 방문하고 주일날에는 그곳 현지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뜨거운 감사와 눈물의 찬양으로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회주의국가 안에 있는 쿠바 신학교와 먼저 믿는자들을 통하여 쿠바 전역에 속히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비전을 위해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쿠바선교에 시간과 물질을 드려 헌신하신 모든 팀멤버님들과 자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주안에서 하나되어 성숙한 신앙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쿠바선교에 Spiritual Leader로 수고하신 [설성훈 목사님], VBS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눈물과 기도의 사랑으로 섬기신 [설수진목사님], 항상 겸손함과 사랑으로 인카운터 국장으로 섬기시는 [안재경 안수집사님] 이번 모든 선교일정을 위해 Director로 수고 해주신 [Roy 안수집사님],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신 모든 팀멤버님들과 참석한 자녀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이번 쿠바 신학생 인카운터와 VBS,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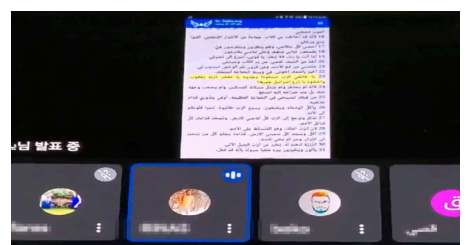
요르단 Jordan

최OO 선교사

지난달에 저희 요르단 현지인 팀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온라인 전도를 집중하였습니다. 튀르키예에는 많은 아랍 사람들이 있지만

아랍어를 하는 선교사가 매우 적어서 복음이 아랍인들에게 잘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지난달 온라인으로 전도한 결과 영접자 21명이고 그 중에 세례 희망자 7명이나 되어서 온라인으로 목,금, 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에 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1분단상 132-10월호>

- 김대규 장로

주를 믿는다면서도 삶의 영역이 세상에 오염 되었음에도 무감각하거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을 간간히 보게 된다. 더 나가 회개도 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가하면 세상과 구별됨이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왜 이리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첫사랑의 상실이나 둔감, 갱신 없는 신앙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주의 은혜에 타성이 생겨서인가?

주위의 사람들의 처세가 모두 거기서 거기인 듯이 보이기에 별 다를게 없어 무감각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거나 동질 또는 동화되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성령께서 간섭해 주신다는 점이다. 상처가 나면 아프고 붓고 하며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에 저항하듯이 믿는 자가 세상모습에 젖어 들 때 성령께서는 양심을 통해 우리를 채찍질하신다. 깨달음이다. 결국은 올바르게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레지스탕스가 적에게 저항하는 것과도 같다. 보존하고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대해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저항하며, 싸우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의 믿는 자의 삶이다. 이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올바르게 서서 나가려는 영적 싸움 곧 영적 전쟁인 것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장에 서있는 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이기 때문이다. 무수한 총알이 난무하는데 순간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적당히 대처한다면 결과는 처절할 것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후의 심판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고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오염, 동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

한 것이라면서 세상의 것과 혼합해서도 아니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것 이외의 것에 대한 어떤 타협도, 동조도 나를 쓰러트리는 자해행위이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병이 들게 마련이다. 물은 갈아엎기가 쉽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 분별력으로 세상의 것은 물론이고 위장된 유혹과 속임수, 선하게 보이게 하는 위선, 사익에 가려진 헌신이나 섬김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 쉬운 일은 아니다. 합리성이라는 논리, 체계와 조직의 효율성, 세상적인 이성적 판단, 개인우선주의, 물질주의, 성전환, 동성애 심지어 AI까지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쓰나미로 밀려들어 주님이 주신 조타기를 가누기가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요한 것은 깨어 있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사고와 삶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진정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세속화에 대해 당연히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소멸시킬 힘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성령을 의존하여 그릇된 데에서, 세속적인 것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생명의 법안에 늘 거하도록 스스로를 추של러야 한다. 내안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분출되어 소금처럼 짠맛을 내어 부패되는 것은 방지하고, 빛처럼 어둠을 몰아내어 죄로 엉클어진 이 세상이 주의 빛으로 바뀌질 수 있게 온전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면 된다.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동화되는 삶

을 사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 매일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엡4:23)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성령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엡4:24). 이리될 때 내 주변은 소리 없이 알게 모르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내가 보이지 않을수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강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매일 새롭게 되도록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참 신앙에 서게 되는 것이다.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리해야만 연약한 육신의 나와서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다. 주안에 있는 자,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다. 세속화되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이다. 그 이름은 새로운 피조물 소금과 빛이다. 바로 이러한 자가 우리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금과 빛이 우리의 이름이어야 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내가 선 곳에서도 그 뜻이 이뤄지도록 말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일본 송좌한 / 김정희 선교사

이번 14기 선교사 훈련을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미주훈련을 다 마치고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선교지는 오사카를 두고 기도 중입니다. 이번에는 도쿄에서 며칠 머물며 주변 도시들과 교회들을 보고 나오야, 오사카로 이동하려 합니다. 여정 가운데 예비하신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부르짖는 새벽기도의 영성 잊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2. 일본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데 지혜를 주시길
3. 이번달부터 오사카에서 생활할 집과 교회, 어학원 준비를 위해서
4. 흑암의 권세를 묶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그곳에 세워지도록



캄보디아 안진호 / 안지연 선교사

1. 블랙그리빠으 은혜교회 아이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2. 현지인 사역자(준세이하 전도사)학비와 생활비 후원자 연결이 되도록
3. M.K(선교사 자녀들) 사역이 아이들의 미래에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4. 매일 성령충만과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5. 언어 습득을 잘 해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6. 고온다습과 물이 안 좋은 환경 때문에 피부병과 신장에 돌이(저희 돌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음) 생기지 않도록
7.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사역하도록



미국 몽족 황인주 / 황사라 선교사

1. 한국방문과 건강검진, 황사라 선교사의 하지정맥 수술 및 비용 마련을 위해서
2. 토요일 사역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3. 금요일 Food Distribution 봉사자들과 복음전파를 위해서
4. 선교센터 주차장 수리를 위한 펀드 후원을 위해서
5. 11월 추수감사절 친구초청잔치 예산 \$13,000 예산을 위해서
6. 몽족 어른들 제자훈련 성경공부를 위해서
7. Youth TA 훈련과 섬김을 위해서
8. 황선교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9. 선교센터가 홈니스들로부터 안전하도록

모로코 장원 선교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대장내사경을 통한 큰 용종(2cm)을 떼내어 조직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전제를 바로 복용하여 많은 피를 흘렸으나 강영철 목사님의 전화 안수기도로 피가 멎기 시작하여 지금은 완전히 멎었습니다. 아울러 강영철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바쁘신 한국일정에도 이곳 속초까지 와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큰 안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어지러움을 간간히 느껴 아직 주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9월 1일에 강릉 아산병원에서 간등의 피 검사및 뇌경색에 관한 소견 및 투약을 위해 의사선생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늘 성도님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중국 유인숙 선교사

저는 한국에서 중국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중국인들은 한국에 일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기에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중국인 6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 맡겨주신 중국인들 모두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세례받은 중국인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제 마음에 영혼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가득 부어주세요.

선교현황

62개국 341명 (자체파송 74%)
(2024년 10월 기준)

러시아 및 CIS

러시아 쎄뻬르부르그: 조경호(명숙), 노보시빌스크: 김경순, 볼고그라드: 조익현(임문자), 첼랴빈스크: 김봉년(미란), 사할린: 천병기(사라), 김성웅(지수), 날차: 주성길(손정순), 블라디보스토크: 서금순, 이르크츠크: 한성우, 타타르스탄: 주선민(손소미아), 하바롭스크: 정소남(미선), 우술리스크: 장석희(약사나), 로스토브: 최성목(혜옥), 블라고베렌스크: 은성식(김경희)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최00 겸임
아르메니아: 백승환(울가)
아제르바이잔: 임성식(김보화)
키르기스탄: 강형민(속진)

동북 아시아

한국: 정태호(정은주), 고은희, 김영진, 김에스더, 이기쁨(정은주), 최광(나미연), 남경애, 황영수(정경련), 오세민, 김광문(이용숙)
몽골: 김연일
중국: 김00(송00), 장00(00), 김00(00), 박00(00), 이00(00), 조00(윤00), 유00, 정00, 장00(김00), 이00(소00)
대만: 이계석(연희), 김성수(이순희)
일본: 공영환(은자), 이종하(정혜겸), 송좌환(김정희), 정윤기(유미호), 박두희(이선희), 최대웅(권나현)

동남 아시아

베트남: 강00, 이00(장00), 강00(한00)
태국: 김인기(박춘희), 임진섭(양윤희), 심다솔(강애리), 박경덕(신미선)

라오스: 신00(00), 천00(이00), 유00, 황00(전00), 제00(박00)
캄보디아: 김동규(이승향), 김광석(이영미), 김영대(조정아), 안진호(안지연), 박효순(이영희), 손민지(이범신), 김길현(원경연)
필리핀: 김인수(황소정), 성은식(김해경), 김적용(박영란), 박성용(미경), 김대영(김숙형)
미얀마: 한00(김00), 강00(이00), 곽00(엄00), 유00(킨00), 전00(김00), 최00(김00), 김00(00)

서남 아시아

인도: 강00(이00), 한00(손00), 남00(마00), 남00, 정00(전00), 김00(이00)
네팔: 김00 이00(00), 박00, 김00(오00), 오000
인도네시아: 기00, 한지영(김성용), 김태환(주애니) **파키스탄:** 정00(이00)
파푸아뉴기니: 남영미(김운용), **방글라데시:** 곽00(김00), 강00(현00)

아프리카

케냐: 황광식(원지혜), 윤형로(미나), 강완식(조영순)
남아공: 이은원(최정미)
소말리아: 김성림(배현란) 말라위: 백영심
모리타니아: 박준용(한운경)
탄자니아: 정부진(조재숙), 여이주(최희정), 송규영(오효숙), 이병철(박미란), 정현우(정슬기), 오종성(박영숙), 조병훈(허선옥) **모로코:** 장원

중동

이스라엘: 김00(아00), 양00(00), 장00(최00), 유00(김00), 이00(00) 최00(아00), 강00(R 00), 김00(조00), 신00
이라크: 김00, 김00(00), 한00(00)
요르단: 서00(00) 고00(00), 최00(00)
이집트: 김00, 김00(양00)

레바논: 정00(정00), 장00(서00)

중남미

아르헨티나: 김영선(박혜순), 유성두(강지애)
스텔라김 볼리비아: 정은실(영자)
쿠바/칠레: 안희진(구스타보)겸임 **쿠바:** 전재덕(이재순) **파나마:** 김재한(그레이스)겸임
베네주엘라: 김도현(강미애), 김재한(그레이스)겸임 **과테말라/엘살바도르:** 최용준(재숙) 겸임
브라질: 한인승(선희), 하선(남성만)
콜롬비아: 박재현(정은실) **멕시코:** 이종식, 송두선(양정연), 임한곤(이길선), 이준성(석화)
페루: 최갑순(정미희), 박윤수(병순), 박세진(천희정)

유럽

이태리: 박상연(병희)
오스트리아: Markus Obermayr
영국: 조성문(김애자)
독일: Vitali Gerner, Musa Galiew, Jonatan Krüger(장아이린), 오철희(이문희), 문성은(그레이스), Chris Schell(임영임)
알바니아: 오판석(정미라)
프랑스: 송석배(김은영), 송준호(정희진)
불가리아: 박정일(인실) 몰도바: 정석영
터키: 김00(00), 공00(박00), 지00, 김00(00) 최00(이00), 전00
우크라이나: 김교역(주순), 김병철(진희)
그리스: 신동덕(신미희), 이정식
보스니아: 신운영

북미주

미국: 양태철(현정), 강충원, 백원일, 홍종철, 김득원, 박명숙, 구본철(구영숙), 최미영, 황인주(정미), 정화미, 김형주(민지), 권종승, 박태수, 김정한 **캐나다:** 함상훈(명숙)

선교부 광고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태국 TD 1기 (10/14-10/17)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인도개척선교 (10/18-10/26)
팀모임: 매주 화요일, 7PM 웨딩채플
문의: 전재우 안수집사 (562-644-2128)
최윤희 장로 (714-357-7149)
- 베트남TD 3기 (10/22-10/25)
S/L: 한기홍 담임목사
렉터: 안재경 안수집사
문의: 안규범 안수집사 (714-328-4820)
- 히말리야 TD 6기 (10/22-10/25)
S/L: 전혜숙 목사, 렉터: 백미영 권사
문의: 조 제이슨 집사 (213-905-0636)

-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 개척선교 (10/31-11/12)
팀리더: 홍호철 장로
문의: 이정호 안수집사 (213-500-7939)
- 엘살바도르 AFA2기 (11/3-11/10)
S/L: 안영식 목사
렉터: 피터이 안수집사
문의: 차윤석 안수집사 (714-334-2340)
- 쿠바 신학교 프리덤 (11/10-11/16)
S/L: 송종호 목사
총무: 한상영집사(213-713-2001)
-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TD (11/2-11/10)
문의: 원용경 장로 (213-675-2441)
- 필리핀 GMI Vision Camp & 인카운터 6기 (11/27-12/5)
S/L: 김홍권 목사
문의: 이희겸 안수집사(714-337-3091)
- 미국 나바호 인디언 성탄절 행사 (12/12-14)
문의: 문기훈 목사(714-351-7212)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ISSION
WWW.FACEBOOK.COM/
GMIMISSION

